

요약

리스터연금은 2001년 독일 정부가 공적연금 급여수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연금제도임. 그러나 리스터연금은 낮은 가입률과 수익률로 인해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7월 독일 개인연금개혁위원회는 보다 간편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리스터연금 개혁안을 발표함. 한편, 보험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리스터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 리스터연금(Riester-Rente)은 2001년 독일 정부가 공적연금 급여수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공적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개인연금제도임
 - 2000년대 초에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두 번의 개혁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기여기간 45년 기준)은 2001년 이전의 70.0%에서 현재의 48%로 크게 하락함¹⁾
 - 독일 정부는 2001년에 공적연금 보험료를 2030년까지 2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급여액을 삭감하였으며 2004년에 공적연금 가입자가 감소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와 기존 수급자의 급여액을 낮출 수 있도록 개정함
 - 독일 정부는 리스터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에게 보조금과 소득공제의 이중 혜택을 제공하며, 리스터연금의 보조금은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및 가입보너스를 포함함²⁾
 - 가입자는 사회보험부과소득의 4%를 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최대 175유로의 기본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입자 및 25세 이하의 가입자는 각각 185유로(2008년 이후 출생 자녀는 300유로)의 자녀보조금 및 200유로의 가입보너스(일시금)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리스터연금은 세제적격 사적연금과 같이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리스터연금의 보험료는 2008년 이후 2,100유로 한도에서 조세부과소득에서 공제됨
 - 리스터연금은 보험감독원에서 제정된 인증기준을 준수한 보험회사, 은행, 투자회사, 주택은행에 의해 제공되며, 가입 비중은 보험회사(66%)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투자회사(20%), 주택은행(10%), 은행(3%) 등의 순으로 나타남³⁾
- 리스터연금은 2001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낮은 가입률과 수익률로 인해 공적연금 개혁으로 삭감된

1) Frank Berner et al(2006. 1), "Riester Pensions in Germany: Do they substitute or supplement public pensions? Positions in the debate on the new public policy on private pensions"; Deutsche Bundesbank(2022. 6), "Pension insurance scheme: long-term scenarios and reform options"

2)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1. 12), "Staatliche Förderung der privaten Altersvorsorge: Riester-Rente"

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3. 4), "Statistik zur privaten Altersvorsorge (Riester-Rente)"

노후소득의 부족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리스터연금 계약 건수는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7년에 1,660만 건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44% 이하로 떨어져 도입 당시 설정 목표 가입률인 70~75%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독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2022년 리스터연금의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으며, 독일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전체 리스터연금 계약 중 1/5이 더 이상 납입되지 않고 있음⁴⁾
- 리스터연금의 수익률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스터연금 보험의 보증이율 하락 추세와 독일의 저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리스터연금 수익률도 목표 수익률인 4.5%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보험회사에서 판매된 리스터연금 보험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이율이 2001년에는 3.25%에서 시작하여 2011년에는 2.25%, 2015년에는 1.25%, 2017년에는 0.9%, 그리고 2022년에는 0.25%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7월 독일 개인연금개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한 리스터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여 더 간편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리스터연금제도를 구축하려고 함⁶⁾

- 먼저, 리스터연금의 간편한 가입 및 이용을 위해 정부 보조금의 계산을 간소화하고 아동 수당을 통일하며 적립금 수령 방식을 기존의 평생 연금 수령에서 일시금 인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함
- 또한, 리스터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자 위험, 비용, 보증 등과 같은 상품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승인 제도를 도입하며 리스터연금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및 독립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권장함
- 마지막으로, 리스터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금보장원칙을 완화하여 원금보증 상품 외에도 실적배당형 상품을 제공하며 관리 수수료 억제를 위해 연금 상품 개발 요구 사항을 표준화하고 제공 업체 간의 경쟁 유도 방안 도입을 권장함

○ 한편, 보험협회(GDV), 소비자센터(VZBA), 투자협회(BVI) 등 이해관계자들도 리스터연금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제안들은 정부의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⁷⁾

- 보험협회는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세제혜택이 없는 시민연금(Bürgerrente)제도 도입을 제안함
- 소비자센터는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를 별도로 개혁하는 대신 공·사연금체계의 종합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기본 연금 급여를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하면서 직장 근로자 급여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하고 오프아웃을 제공하는 새로운 국가적인 연금기금(Extrarente durch Vorsorgefonds)제도의 도입을 권고함
- 투자협회는 보험협회와 유사한 전국민이 가입 가능한 개인연금제도로 최소 60세까지 보유기간이 요구되고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펀드(Altersvorsorge-Fondsdepot)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4) Finanztip(2023. 8), "Was sich 2023 bei der Altersvorsorge für Dich ändern könnte"

5) 독일의 공적연금 개혁 이후, 리스터연금을 통해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45년 동안의 가입 기간, 62세 이후 수령 개시, 보조금을 전액 지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 그리고 목표 수익률 4.5%를 달성해야 함(김동경(2021. 11),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시사점」,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3. 7), "Fokusgruppe private Altersvorsorge legt Reformempfehlungen vor"

7) Finanztip(2023. 8), "Was sich 2023 bei der Altersvorsorge für Dich ändern könnte"